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대처합니다.
 - 보내드린 온라인 예배 참석 방법대로 각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담임목사 집으로 보내 주세요.
주소: 48 Firwood Rd (2nd floor) Port Washington NY 11050

- 온라인 예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 마음의 준비: 온라인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예배준비 -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교회에서 예배하듯 단정한 복장으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 예배를 드리는 모습 - 주일예배처럼 함께 소리 내어 찬송하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3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03/22				
03/29	최홍만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말씀

본문: 요한복음6장 16~21절 제목: 내니 두려워 말라

- 기도제목: 1.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2.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3.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으며 살게 하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전쟁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누가 미국을 거드릴 수가 있나요?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우리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준다고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보게 됩니다.

1.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철저히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천재지변 앞에서 무능하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5명2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또한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 두려움에 관하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두렵습니다. 요즘 목이 간질간질하면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이 아닌가? 바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뉴스 틀어놓고 들어오고 보고 있습니다.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온통 세상의 초점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무섭고 그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니 그것이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연일 방송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너무 신경 쓰고 초점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덮치려고 다가오는 바이러스 공포도 경제위기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곳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3.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헬라어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더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은 전능자로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
믿음은 초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세상의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달려들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금방 두려워지고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영영하신 그 곳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행사

5일 - 종려주일
12일 - 부활주일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한밀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20년 3월 22일



주일예배

	오전 9시30분(1부) 오전 11시(2부)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야고보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번(시편32편)		
찬 송 Hymn	463장		
기 도(Prayer)	배한우 장로		
성 경 Scripture	요한복음 6장 16~21절		토요 새벽기도회
설 교 Message	내니 두려워 말라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헌 금 Offering	71장		
▲ 찬 송 Hymn	20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